농촌청년 결혼문제의 현실과 대안

이정화*, 박공주(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I. 들어가는 말

농촌청년의 혼인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이후이다. 그 후 농촌관련 많은 단체 및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90년대 이후 UR 협상등 농업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농촌총각의 문제는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렇지만 농촌청년의 결혼문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농업의 여러 어려운 국내외적인 상황이나 고령화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가려진 것이다. 2000년 현재 25~34세 결혼적령기 농촌 미혼남성은 약 342천명인데 반해 같은 연령의 농촌 미혼여성은 약 112천명에 불과하여 미혼여성은 미혼남성의 약 1/3수준으로, 농촌에서 미혼남녀의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농촌 미혼남녀의 성비 불균형은 읍단위 보다 면단위에서 더 크다. 더우기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 중에서 농촌청년과 혼인의사가 있는 미혼 여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향후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을 예견하게 한다.

농촌청년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문제는 자본주의 진전과정에서 농업부분을 희생시킨 정책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화가 진전된 이후 농촌청년의 결혼문제는 계속 존재해 왔고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었다. 이에 혼인하지 못한 많은 농촌청년들이 혼인을 위해 이농하여 도시로 유입되었고 이는 농촌에 젊은 인구가 더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현재 농촌이 고령사회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가 하면 농촌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농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며(이영대, 1989), 중국의 조선족 및 외국의 여성과 결혼을 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갈등이 발생하기도 했고(농민신문, '98.6.22, 동아일보 '97.4.17), 국제사기결혼으로 인해 농촌청년 본인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심각한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했으며(농민신문, '01.6.27, '02.1.25), 끝내 혼인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이 자살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최민호, 김성수, 안상근, 1990). 따라서 농촌청년의 결혼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가족의 문제이며, 농촌사회의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농촌미혼남성이 혼인을 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은 농촌의 후계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과 농촌이 제 기능을 하고 발전하는데, 나아가서 농촌사회가 유지, 지속되는데 지극히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실태 및 발생원인, 해결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TV의 시사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통해 농촌총각 결혼의 어려움, 국제결혼의 문제점, 사기결혼 등 부정적인 사례들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실제 결혼적령기의 농촌청년 중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성비불균형은 얼마나 심각한지, 농촌총각이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농촌미혼남녀와 도시 미혼남녀의 성비차이, 우리나라 국제결혼비율 등을 살펴보고, 둘째,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농촌총각 성혼에 관하여 추진되어온 사업의 성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청년의 결혼문제는 우리 사회구조적인 문제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실태

가. 도시와 농촌의 연령별 미혼남녀 인구비율

2001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29.6세, 여자 26.8세이다. 이에 근거하여 결혼적령기인 25세 이상 5년 주기로 미혼자의 비율을 <표 1>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 연령집단별 미혼자 비율을 보았을 때, 남성연상형 결혼규범으로 인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혼인적령에 든 성인 남녀 중 남자의 미혼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보면, 미혼율은 30세 이후부터 농촌남성의 미혼율이 도시남성의 미혼율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 도시여성의 미혼율이 농촌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혼남성의 비율은 농촌에서 높고, 미혼여성의 비율은 도시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미혼남성의 비율은 높고, 미혼여성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청년이 결혼할만한 농촌의 미혼여성은 우선, 인구규모 자체가 적고, 또한 성비에서도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결혼에 대한 규범, 가치관의 변화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빨리 변화하는 것을 감안하면 도시 미혼남성의 상당부분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거나 '결혼적령기의 규범이 약화된' 현상으로 인하여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닌, 미루거나 안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다. 즉, 결혼적령기의 미혼 도시남성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미혼인 경우가 많은 반면, 농촌 미혼남성들은 적령기의 신부감을 구할 수 없어 미혼인 상태로 남아있는 비자발적인 미혼인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나.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추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혼인추이를 보면 한중수교 이후인 '94년부터 중국과 기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전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10,006건이다. 여기서 중국과 기타지역의 여성과 혼인한 건수는 8,765건으로 전체의 87.59%에 이르며 1991년에서 2001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약 42배나 급증한 것이다.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을 살펴보았을 때, 특히 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인 남성사이의 결혼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한국남성은 언어를 공유하는 동족간의 결합이라는 장점 때문에 중국의 조선족 여성들과 국제결혼이 쉽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 대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동경과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한국 농촌남성의 혼인욕구가 합치되었던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사회에서도 빠른 산업화와

<표 1> 도시와 농촌의 연령별 남녀 미혼율

(단위: %)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도시	71.57	41.90	27.79	11.45	10.08	4.45	4.45	2.66	2.11	1.80
농촌	**68.45**	**29.53**	**29.34**	**7.09**	**12.98**	**3.36**	**6.89**	**2.26**	**3.63**	**1.49**
읍	63.58	27.26	23.45	6.36	9.63	2.99	5.02	2.10	2.83	1.48
면	72.10	31.79	34.72	7.84	16.39	3.70	8.35	2.38	4.14	1.49

* 자료: 통계청, 2000.

<표 2> 연도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추이

년도	전체	일본	중국	미국	기타
2001	10,006	976	7,001	265	1,764
2000	7,304	1,131	3,586	235	2,352
1999	5,775	1,248	2,883	280	1,364
1998	8,054	1,004	4,688	1,514	848
1997	9,266	1,075	7,362	213	616
1996	12,647	2,370	9,271	228	778
1995	10,365	1,412	8,450	188	315
1994	3,072	561	2,043	227	241
1993	3,109	826	1,851	230	202
1992	2,057	1,223	429	249	156
1991	663	224	106	232	101
1990	619	175	88	268	88

* 자료: 통계청, 2002.

함께 중국의 많은 조선족 여성들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고 있고 한국에 오고자 하는 조선족 여성들도 한국의 농촌보다는 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의 농촌청년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언어가 다른 지역과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합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 9월말까지 도내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1,579명의 아내 출신지는 중국이 635명, 필리핀이 477명, 일본이 399명 순으로 나타나(중앙일보, 2001.12.02.) 중국에 이어 기타지역의 외국인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원인

가. 농가인구에서 성별 인구 구성비의 불균형 심화

2000년 현재 농촌에서 결혼적령기인 25세에서 34세의 미혼남녀비율을 보면, 읍부의 경우 미혼남성은 134천 여명, 미혼여성은 51천 여명으로 미혼여성은 미혼남성의 38.36%에 불과하다. 면부로 가면 미혼여성의 비율은 더 낮아져서 미혼남성은 208천여명, 미혼여성은 6만 여명으로 27.2%에 불과하다. 이렇듯 불균형한 성비에서 농촌의 청년이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농촌에 있는 미혼여성 중에 농촌총각과 결혼할 의사가 있는 비율이 0%라는 사실이다(윤순덕, 2000). 이는 약 15년 전의 연구에서(강경하, 1988) 건강, 성격, 애정, 경제적 사정의 개선 등 배우자로서의 조건이 향상될 경우 미래 농업인과 결혼하겠다고 밝힌 농촌출신의 미혼여성이 68.8%나 되었다는 연구결과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결혼적령기 인구수에서 농촌사회가 이렇듯 극심한 남초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사회가 산업화의 과정에서 농업, 농촌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유지해왔고 그러한 경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장경섭(1995)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젊은 여성들을 농촌에서 몰아내고 있는 경제 · 사회 · 문화

적 환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로 추진되어온 영농다각화는 농촌여성 노동력의 집중적 활용을 필요로 해 이들에게 이중, 삼중 노동의 짐을 지운 반면,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부간 역할문화와 노인 및 아동부양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된 도시의 안정된 중산층 가정의 삶과 대비되는 생활 및 문화수준의 격차 등은 젊은 여성들을 농촌에서 몰아내고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농촌을 소외시키는 정책으로 인하여 도·농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지고, 천농사상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었다. 이 역시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농업, 농촌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나. 농촌미혼남녀의 만남의 장, 성혼주선기관의 부재

농촌은 남녀의 만남에서 도시지역처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농업의 특성상 여러 젊은 남녀가 어우러져 일을 하기보다는 혼자서 혹은 가족 내에서 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성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어온 사이버 세계에서도 농촌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건전한 이성친구를 사귀고 관련 문제를 상담할만한 사이트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청년에 대해서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겠다는 결혼정보회사가 소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영세한 회사들로, 신뢰도가 낮고, 그 외에는 현재 농촌총각의 결혼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이 거의 없다. 인지도가 높은 국내의 결혼정보회사의 대부분은 농촌 총각에게 아예 회원가입 자격조차 주지 않고 있다.

다. 국제결혼의 어려움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농촌의 청년들은 마지막으로 외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농촌청년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외국의 신부감과 만남을 주선받는데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이 소요되고 1,000만원 이상의 고가의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언어가 통하는 중국의 조선족 교포 이외의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신부와의 언어, 사상, 문화, 습관 등의 차이가 야기할 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더구나 90년대 중반이후 우리사회에 많은 외국인 신부가 들어와 생활하고 있지만 잘 적응해 생활하는 긍정적인 사례들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 대신, 국제결혼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즉 사기결혼이나, 파경을 맞은 경우 등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농촌총각의 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97년 3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건수 중 24%가 파경을 맞았다(동아일보 97.4.17)거나, 충남에서는 조선족 여성과 결혼 건수 중 13%가 이혼 및 가출 등으로 파경을 맞았다(농민신문 98.6.22)는 보도가 있었다.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외국인 신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농촌총각들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상담 및 방법, 신부측 국가의 문화나 결혼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농촌청년과 외국인 신부가 몇 명이나 결혼해 있는지, 어떻게 적응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국제결혼을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놓여있는 농촌청년에게 매우 큰 장애요인이 되며 그만큼 성혼 및 결혼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을 낳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라. 기타

이상에서 거론한 이유 외에 이성교제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농촌청년들의 교양 및 사교능력의 부족, 도시 여성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 농촌여성의 농업노동부담의 과중함, 농가의 생활환경의 불편함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IV. 농촌청년 결혼관련 추진된 사업

가. 과거 농촌청년 성혼돕기 사업

농촌총각의 문제가 표면화된 80년대 이후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펼친 기관은 농촌진흥청이다. 86년부터 182개시군 농업기술센터(구, 농촌지도소)에서 결혼적령기의 총각, 처녀의 신상카드를 비치하여 농촌지도사나 생활지도사들이 직접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고, 신랑·신부교실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을 주선하고 성혼돕기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86년에서 '92년까지 9,905쌍의 성혼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농어촌복지연구회라는 사단법인과 공동으로 중국교포처녀와의 결혼을 여러회 추진하여 200~300여 쌍의 결혼을 성사시킨 바도 있다.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95년~'97년 후반까지 중국교포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하여 20여 쌍의 결혼을 성사시킨 바 있다. 그 외에도 신문사, 방송, 새마을 부녀회 등이 산발적으로 관여하여 성혼을 독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의 노력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농촌진흥청 및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90년대 들어서서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 그 이유는 결혼은 개인 대 개인의 매우 사적인 결합인데 공적인 기관이 들어서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결혼당사자들과 결혼 이후에 일어나는 갈등,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고, UR 협상 등 농업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농촌청년의 결혼문제는 점점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더불어 이를 지원하던 단체, 지원금도 줄어들어 이제는 거의 그 명맥이 끊겼다고 할 수 있다.

나. 현재 농촌청년 성혼관련 사업

현재, 농촌총각 성혼문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나 기관은 거의 없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의 형태가 몇몇 있을 뿐이다. 우선 2000년 11월부터 농협중앙회에서 'www.greencouple.co.kr'이라는 비영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 사이트는 적은 예산과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실제 혼인의 사가 있는 여자회원이 드물어 회원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살기 생명농업운동본부(사)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담당자가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자율적으로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참여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회원간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 효과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촌청소년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한국 4-H본부에서 운영하는 'www.korea4-h.or.kr'가 있다. 이 사이트는 크고 작은 동호회를 비롯하여 회원간 원활한 참여가 돋보이지만 이를 주로 이용하는 층은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결혼문제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V. 농촌청년 결혼과 관련한 앞으로의 과제

농촌청년의 성혼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자녀세대를 위한 교육기반 확충, 경제적 안정 등 농촌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농촌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농촌이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게 된다면 농촌청년의 결혼문제도 자연 해결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매우 어려운 농업여건 속

에서 농촌사회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짧은 시간 내에 농촌사회가, 농촌에서의 삶의 질이 급상승하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농촌청년의 성혼에 도움이 될만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청년의 결혼과 관련한 기초자료의 생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농촌청년의 결혼문제의 실태가 어떠한지, 지역적 편차는 없는지 등에 관한 전국적인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결혼 후 문제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결혼초기의 농촌부부들의 결혼과정, 당면문제를 파악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국제결혼한 가정의 실태 및 경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농촌의 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농촌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화하는 사회의 현실에 발맞추어 농촌청년에게 인터넷을 통한 만남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농촌청년에게 제공되지 못했던, 농촌생활 및 이성교제, 결혼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실을 운영하며, 호감이 가는 이성과 건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로 사료된다. 이는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농촌청년과의 결혼을 기피해온 도시, 농촌의 미혼여성들에게 농촌 및 농촌청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촌청년에게 청년기 발달과업인 '이성과의 친밀감'을 나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과 결혼하는 농촌청년의 사례는 앞으로도 점증할 것으로 예견되고, 실제로 외국인과 결혼 후 잘 적응해서 생활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훨씬 더 많은 현실에서 농촌청년이 신뢰할만한 창구를 통하여 국제결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농촌청년이 개인적으로 사설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할 시 과다한 비용과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국제결혼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창구가 갖춰진다면 많은 농촌청년들이 고민을 덜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언어권이 다른 나라와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제결혼 부부를 교육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신랑과 신부에게 각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교육하고, 이해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결혼적응, 한국 농촌지역사회에의 적응을 도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 용 문 헌】

강경하(1988). 농촌미혼여성의 결혼관,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농민신문, 1998.6.22, 01.6.27, 02.1.25

동아일보, 1997.4.17

윤순덕(2000). 2000년도 시험연구사업 보고서, 농촌생활연구소.

이영대(1989). 농촌미혼남녀 인구수 분석과 농촌청년 결혼문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권 1호, 49~56.

장경섭(1995). 가족농체제의 위기와 농촌개혁의 전망 -90년대 농촌현실의 사회학적 평가- 농촌사회 제 5집, 195-226.

중앙일보, 2001.12.2.

최민호 김성수 서규선(1985). 농촌청소년의 결혼문제 실태와 대책, 서울대 농학연구 10권 1호, 79-89.

최민호 김성수 안상근(1990).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발생배경과 대책, 서울대 농학연구 15권 1호, 63-73.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